순천시 4차산업혁명 선도 전략 착수

위원회, 추진 방향 등 논의 5년 단위 '순천형 4차산업혁명' 종합계획 10월까지 수립

순천시가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차스해다

순천시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순 천형 4차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의 추진 방 향과 4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펼쳤다.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 전문

가, 순천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등 15명으로 2021년 9월 6일 구성됐다. 4차산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순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산업·경제·일자리 전문가와 대학, 관계부서, 기업인 등 현장의 소리를 폭넓게 반영 해 2022년~2026년까지 5년 단위의 '순천형 4차산 업혁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 5년은 대내외 산업·경제 현황분석, 순천 지역 산업 현안 도출, 추진 방향 및 비전 제시, 산업 분 야별 세부 추진전략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 창업· 기술·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며 수립된 계획은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검토를 거쳐 '4차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으로 확정돼 세부 전략과제가 만들어진다.

또 순천시정자료관(메타버스) 등 현재 추진 중 인 28개 사업에 대해 15개 주무 부서가 참석해 각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순천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정확한 사업 추진안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정책 수립과 인적·물적 자본, 기업의 혁신 역 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경찰 독거노인 범죄안전활동 업무협약

여수경찰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범죄 안전활동으로 유관단체인 여수시노인복지관, 미 평종합사회복지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소라종 합사회복지관 및 여수시니어클럽이 참여한 가운 데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유관단체들은 독거노인 범죄의 선 제적 예방과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 독거노인 범죄 신고 및 정보 공유 강화 ▲전수조사를 통한 취약 대상자 선정 ▲취약 대상 방문 순찰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범죄 예방 홍보활동 및 맞춤형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수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시, 대한노인회여수시지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동계전지훈련지 각광 광양시, 육상 전천후경기장 건립

전지훈련팀 유치 박차

동계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시가 육 상 전천후경기장 건립과 더불어 전지훈련팀 유치 에 더욱 박치를 가할 계획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 대회 또는 종목별 스토브리그대회를 통해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왔다. 선수들의 방문에 따라 지역 실물경제 활성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지훈련팀 방문 자제 요청을 비롯해 되돌려 보내기도 해다.

올해 초에는 단계별 일상 회복 추진에 따른 일부 전지훈련의 참여에 따라 스토브리그대회와 백운 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선수 등 1515명(연인원 2 만481명)이 다녀갔다. 이를 통해 시는 17억원상 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

박상훈 광양시 체육과장은 "육상 전천후경기장 이 건립되면, 악천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광양시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전천후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양을 찾은 전지훈련팀

마련된다"며 "전지훈련팀이 지역에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지역경제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토란·와사비·젠피' 아이스크림 개발

7월15~17일 아이스크림 축제 대비

'토란·와사비·젠피'등 특색 있는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곡성에서 준비되고 있다.

곡성군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곡성레 저문화센터 인근에서 아이스크림 축제를 열기 위 해 특별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 혔다

우선 지역의 특산품 토란과 멜론을 활용한 아이 스크림이 개발 중이다. 토란은 전국 생산량의 70% 가 곡성에서 생산될 만큼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멜론 또한 대표 특산물로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출시되고 있지만 축제기간 방문객의 입맛을 잡기 위해 특색있는 맛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곡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와사비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이 연구되고 있다.

또 민초파를 탄생시킨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처럼 마니아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젠피(초피)아이스크림이 유명 요리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발되고 있다.

젠피는 강력한 향을 지니고 있어 향신료나 약재로 많이 쓰이며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젠피아이스크림이 완성되면 축제기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먹기 챌린지' 등 다양한 관련 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축제기간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열림에 따라 비누방울 슬라이딩 대회, 워터 슬라이드, 물총 싸 움 등 체험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축제는 곡성군과 지역 상인,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체육회 등이 참여해 기획한 민관협업 행사이다"며 "5월 장미축 제, 10월 어린이대축제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볼 거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

9개국 408점 출품…국외 256점 최병숙 작가 '선물 같은 …' 대상

구례군이 최근 국제대전으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제21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사진〉을 개최했다.

올해는 9개국에서 408점의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그중 국외작품이 256점으로 국제전으로서의 높은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올해 도입된 3차 심사와 국민온라인 투표는 보다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는 발판이 됐다.

올해 출품된 작품들은 예전에 비해 야생화 등 자연소재의 사용비율이 높았고, 염료의 사용이 현격하게 줄었으며 구성 및 색채의 표현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 중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겸 비한 색깔 있는 우수한 작품 139점이 선정됐다.

이번 대전에서 종합대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병숙 작가의 '선물 같은 일상의 행복'이 차지했 다. 이번 수상작품들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 시할 계획이다.

우두성 압화대전위원장은 "압화대전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힘들고 오 랜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압화작품의 예술성과 가 치는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전을 주최한 구례군수 권한대행 이광동 부군수는 "압화대전이 21번째를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압화 예술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코 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압화박물관을 찾 아주셔서 압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청소년수련원, 보훈처 공모 사업 선정

독립운동가 찾기 등 프로그램

보성지역 청소년들이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에 배울 기회를 갖는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이 최근 국가 보훈처에서 공모한 '2022년 보훈 테마활동' 사업 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성수련원이 공모한 부문은 '독립'으로,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독립정신'을 주로 다루게 된다. 보성수련원에서는 '다같이 돌자! 우리 동네 독립운동가(애국자)를 찾아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지역 출신 교육자이자, 시인이며 향토사학자인 김용국 보성향토사연구소장을 전임 강사로 초빙해 지

역 청소년들에게 보성의 애국자들을 직접 체험하 게 한다.

또 청소년들은 관련 도서를 이용한 독서 토론이나 디카시(디지털카메라와 시의 합성어) 작성하기 등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열들을 공부하게 되며, 보성수련원은 이 과정이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애국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등 소중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수련원은 이번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거룩한 선조들의 얼을 일깨워 애국심을 갖게 하고 창의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데크의 세따교知!"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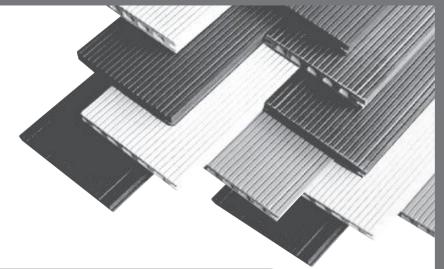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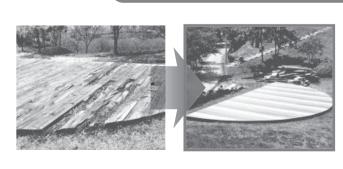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